

## 자원봉사자 정년퇴임을 하면서

서남희(아네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5월이 오면 유난히도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리웁습니다.

2008년 5월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친정 어머니께서 입·퇴원을 반복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비록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평소 호스피스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어머니의 입원을 통해서 호스피스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곧 이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힘든 상황의 환자분과 가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가서 함께 공감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의미 있는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혼자서 일반인 호스피스교육을 통해서 봉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찍부터 봉사를 시작하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봉사자 정년퇴임까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였습니다.

10년 이상의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활동을 뒤 돌아보면 주 1~2회 병동 내에서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수많은 다양한 봉사

활동도 의미가 있었고, 신입 봉사 시기(활동기간 1년 미만) 조장님(선배님)과 2인 1조로 시작한 가정호스피스 활동에 동행하면서 퇴원 환자분 가정으로 방문하여 함께 한 소중한 기억과 추억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신입 때 처음 가정 방문한 80대 중반 백발의 고운 모습을 지니신 어머니 환자분과 함께한 추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병동에서 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반가워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 주었네”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하셨고, “분홍 천사님들, 내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있을게” 하시며 오히려 저희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실 때 병동 내에서 봉사 시간 외에 2주에 한 번씩 5개월 정도 가정으로 방문하여 많은 시간을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병동에서 함께 보냈던 환자를 가정 방문해서 만남과 소통을 이어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첫 가정호스피스 방문을 계기로 퇴원환자에 대한 병원과 가정의 병행 봉사활동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 가면서 환자분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가정호스피스 활동도 함께 하기로 생각하였고 정년퇴임까지 실천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봉사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려움이나 고비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우선순위를

호스피스봉사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 보냈던 소중한 시간이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한결같이 함께 봉사할 수 있었던 모든 동료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도 호스피스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동료 봉사자분들이 무척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개인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팀에 흡수되어 팀의 일원으로서 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항상 느끼면서 봉사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스피스팀 조직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팀장 수녀님과 의료진분들,

선후배 봉사자들 그리고 봉사 시간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곳에서 봉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호스피스에 관련된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자원봉사 활동의 퇴임이지만 정년퇴임까지 하고 싶다는 소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삶을 뒤 돌아보았을 때 50대에 가장 잘한 선택은 호스피스봉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환자분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행복한 시간과 추억들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2021년 5월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서남희

## 2021년 상반기 신입회원 명단

### ▶ 평생회원

- 성가복지병원 : 유운봉

### ▶ 일반회원

- 부산메리놀병원 : 이혜선

-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Sr. 채계순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손영택, 조형기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조민정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공문비, 김지연, 박건양, 윤은정, 윤종숙, 이지민

- 성가롤로병원 : 송만근, 이영환